

2023년 1월 19일 설교자 회의

본문 : 창세기 32장 24-32절

제목 : 나를 축복하소서

대지 : 1. 하나님을 대면함

2. 존재의 변화

1. 하나님을 대면함

야곱은 압박 강에서 홀로남았습니다. 앞으로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다가오고 있었고, 뒤로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언약을 맺고 침범하지 않기로한 경계, 갈르엣, 미스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어느 곳으로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크게 고뇌하던 야곱에게 어디서 온 것인지 도 모르는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에 능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야곱은 그에 반해 매끈매끈하며 힘보다는 머리로 형의 것,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것을 뺏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이미지는 신체적으로는 유약하나 머리쓰는 것에 능한 사람이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대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은 머리를 쓰는 지략가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29장 10절을 보면 여러사람이 힘을 합해야 치울수 있는 우물의 돌을 야곱은 혼자 치우기도 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야곱은 에서를 마주함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만큼이나 에서도 힘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이 에서에게 한 일에 보복당할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수준에 맞춰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 승리를 얻은 야곱은 곧 만나게 될 형 에서와의 대면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변화되었습니다.

2. 존재의 변화

과거 이름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는 것을 넘어 중요한 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야곱의 이름은 그 동안 살아온 야곱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속에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나 잡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끝까지 붙든 결과로 이런 엄청난 이름을 얻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듯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만한 시련이 앞에 있습니까? 어찌해야 할바를 모를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대면해주셔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변화시키시며 이겨낼 힘을 주신다.

참고 : 엑스포지멘터리, NICOT창세기, 개혁주의스터디바이블

본문 : 창세기 41장 25-38절

제목 :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대지 : 1. 하나님이 하실 일

2.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1. 하나님이 하실 일

바로는 두 번의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시절 요셉의 해몽을 떠올리며 요셉을 바로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부름받아 나온 요셉은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지체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을 다룬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두 개의 꿈이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7년의 풍년에 이은 7년의 흉년이 있을것임을 말하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꿈을 겹쳐서 곧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미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팔려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꿈을 꾸었고, 팔려간 후 감옥에서도 두 개의 꿈을 경험 했습니다. 요셉과 연관된 꿈들은 두 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요셉은 이번일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 수 있었습니다.

2.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요셉의 해몽과 더불어 방비할 방법을 듣고 기뻐하며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인정하며 마칩니다.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연유인가요? 애굽의 박학다식한 신하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히브리인 노예가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던 바로가 어떻게 그 풍년과 흉년을 보내야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였을 때, 이것은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지혜와 명철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요셉을 훈련 시키는 시간으로 사용 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적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간에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며 귀족들의 예법, 문화등을 배웠을 것이고, 감옥에서 정치와 경제를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모두 마치자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의 시간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힘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을 잘 마치고 준비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고: NAC창세기, NICOT창세기, 앞서 보낸자 요셉

본문 : 창세기 45장 1-8절

제목 : 먼저 보냄 받은 자

대지 : 1. 가까이 오소서

2. 놀라운 계획

1.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 가족과 헤어진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이전에 형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나갔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20여년의 흘러간 세월과 함께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은 동생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자신들이 판 동생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음에 두려워 하던 형들에게 요셉은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은 용서합니다. 수십년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다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형들을 위로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17세의 나이로 팔려오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는동안 요셉 역시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는 다르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 과정이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의 손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의 시간동안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서 나를 보호하시며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반복되는 꿈 해석으로 총리자리까지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 알았고 요셉은 형들을 향한 원망을 멈추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놀라운 계획

요셉의 고백처럼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훈련시키시며 총리로 세우기까지 하신 것은 대홍년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여기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아직은 연약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이라는 커다란 인큐베이터 안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선보다 크고 넓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하고 놀라운 계획은 이미 400년뒤에 만들어져있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셉은 20여년의 애굽생활을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은 자신의 노력이 총리가 되게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크고 완전하시다.

참고 : NICOT창세기, 앞서 보낸자 요셉

본문 : 출애굽기 3장 1-12절

제목 : 양의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대지 : 1. 부르시는 하나님

2. 보내시는 하나님

1. 부르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살인 후 도망나온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이제껏 직접경험하지 못했으며, 들어보지도 못한 기이한 광경을 그의 두눈으로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전혀 타고있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부와 권력이 있었으며, 젊은 나이의 힘도 있어 늘 당당한 모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모세는 나이는 80세이며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 한구석에서 양을 치는 자신감도 떨어져버린 목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힘있고 추진력있는 젊은 사람, 힘도 없고 자신감 마저 없어진 노년의 사람.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그 땅이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존경을 나타냄과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쓰시기 위함입니다.

2.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며 그들을 이끌고 나와 어디로 가야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두 번째 단계를 이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보내심으로 안전하게 애굽에서 400년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니 족히 200만이 넘는 인원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란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400년간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늙고 패배감에 빠진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전혀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젊고 유능한 자들도 많을 것인데 살인자에 도망자 신세인 자신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왕자로서 통솔자의 자질을 갖추었고 도망한 40년은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80년의 세월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왜 저인가요? 저는 그럴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준비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문장 :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시며 이끌어오셨고, 반드시 함께하심으로 계획을 이루신다.

참고 : NICOT출애굽기, 엑스포지멘터리